

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

송 송 이

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.
짓궂고 모질게 부는 비바람도 다 포용하는 강이 되어라.
어느 날엔가 누구에겐가 상처 받더라도
원망하지 않고 용서할 줄 아는 너그러운 강이 되어라.

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.
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무언가 더 주려하는 강이 되어라.
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
더 많이 주지 못해 안타까워 할 줄 아는 강이 되어라.

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.
앞으로 올곧게 나아가지만은 않는 여유로운 강이 되어라.
앞으로 사랑하게 될 존재를 위하여
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휘감고 돌아 흘러가는 강이 되어라.

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.
흐르며 만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며,
스쳐간 인연을 가슴 속에 간직할 줄 아는,
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.

나아가기 위해 흐르기 보다는
메마른 이들의 목을 축이기 위해 흐르는
그런 사람이 되어라.
강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.